

第 8 回

國立公園管理要員 세미나 盛況

5 月 17 日 부터 3 日 間 속리산 國立公園 서

韓國國立公園協會의 事業計劃으로 해 마다 열리는 國立公園管理要員 세미나가 금년에는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와 共同主催로 지난 5월 17일부터 3일간 俗離山國立公園內 俗離山 觀光호텔에서 180余名の 關係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盛大하게 舉行되었다.

今年 第 8회째가 되는 國立公園管理要員 세미나에 앞서 舉行된 開會式에서 本會 李 滌會長은 基調演說을 통해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保存하고 이용 개발함에 있어 보다 지혜로운 調和가 要求되고 있으며 또한 그 公園管理의 成熟과 先進化를 위한 對話의 場이 必要하다」고 強調하고 이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개발과 보호, 그리고 利用이라는 三角關係가 빚어내는 갈등과 상충을 풀어 公 園 管 理의 妙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당부 하였다.

또한 金聖培 建設部長官은 致辭(金報根 國土計副局長 代讀)를 통해 山間奧地의 不便한 與件 속에서 不徹晝夜로 獻身의 人 奉仕를 다하고 있는 自然公園 管理要員과 關係者들의 勞苦에 對해 감사의 뜻을 傳하고 保存과 利用의 調和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民族的 課業인 만큼 이에 對한 莫重한 課題를 풀어 우리 的 아름다운 國土를 後孫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要旨의 말씀을 하였다.

이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朴奉植 事務總長은 「지난 20余年間 推進해온 高度經濟成長의 結果로 우리가 只今 現實을 享有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來日을 爲해 快適하고 깨끗한 環境에 對한 慾求가 漸次 우리 的 當면과제 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最近 深化되고 있는 環境오염, 自然과 파괴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憂慮를 國民의 識으로 승화시키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이어 朴 總長은 유네스코가 推進하고 있는 人間과 生物圈 計副事業은 이러한 慾求를 充足시키기 爲한 궁극적인 目的으로 「自然資源을 管理하는 人間의 能力을 向上시켜 生物圈 資源의 合



理的인 利用과 保수를 도모하자는 것이 人間과 환경 사이의 調和로운 關係를 世界的 次元에서 이루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 하였다.

이 趣旨에 따라서 이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이 세미나를 국립공원 협회와 共同으로 主催하는 意義가 있다고 말하면서 「人間과 生物圈 計劃은 복잡한 土地利用문제에 대한 最善의 解決策을 模索하기 위해서 科學者와 政策決定者 그리고 地域住民의 效果인 協同이 必要하다」고 부연 하였다.

同 開會式은 忠淸北道 知事의 환영사와 자연 保護중앙협의회장 李敏載 博士의 축사가 있는 다음 세미나가 進行 되었다.

이번 第8回 國立公園관리요원 세미나의 進行은 本會 副會長 任慶彬 博士의 司會로, 弘益大 教授 朴炳柱 博士의 國立公園의 適正利用과 便益施設이라는 主題發表(別項)로 始作되었으며 韓國自然保存協會 理事長 金遵敏 博士의 「自然保護와 便益性의 限界」, 高麗大 教授 金樟洙 博士의 「國立公園과 休養施設의 調和」, 本協會 理事인 金憲奎 博士의 「國立公園과 自然學習」 「自然公園과 自然保護運動의 方向」이라는 主題로 內務部 李相龍 自然保護担当官의 發表로 午前會議

를 끝냈다.

第1日 午後會議에는 이날 2時 30分부터 續會되었으며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鄭在鏞 企劃官의 「國立公園內의 天然記念物 管理」,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教育部 鄭斗鎔部長의 「유네스코의 人間과 生物圈計劃」, 西江大 教授 吳桂七 博士의 「生物圈 保存地域과 國立公園 及其他保護」에 關한 主題發表가 있었다.

그리고 세계국립공원의 편익시설에 關한 슬라이드 說明會가 있는 다음 忠淸北道의 자연에 關한 現況說明과 映畵가 上映되었다.

제 2일(19日) 회의는 9時부터 大會議室에서 續會되었으며 이날 세미나의 司會는 本協會 文莊寅 副會長이 맡아 進行되었다. 이날 會議은 建設部 權赫昌 自然公園課長의 自然公園管理와 當面課題(別項 全文)라는 主題發表가 있는 다음 두 시간 30분에 達하는 綜合討論會가 展開 되었다.

특히 이번 第8回 國立公園 管理要員 세미나場에는 유네스코本部에서 보내온 「生活속의 生態學」이라고 題한 포스터展示會가 마련되어 自然과 科學의 生態變化의 심각성을 돌보이게 함으로써 큰 成果를 거두었다.